

주체화의 침묵에서 부서짐의 언어로*

황지성**

목 차

1. 단절의 역사: 정동, 인식, 정치
2. “잘못된 삶”: 장애여성 그리고 ‘예외’가 되는 몸들
3. 교차성 그리고 ‘불능’의 정치
4. 마치며

<국문초록>

이 글은 개인적 경험의 자기 서술을 통해 생명권력의 통치에 개입하고 저항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먼저, 페미니즘/퀴어 이론의 ‘정동’에 대한 고찰에 따라, 개인적이고 정동적인 경험을 역사·정치와 연결해 복원한다. 이어서, 개인적 삶과 ‘장애여성’ 운동이 장애인운동 및 여성운동 모두와 이론적·실천적으로 접점과 긴장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교차성 그리고 ‘불능’의 정치라는 이론·실천을 대안으로 탐색한다. ‘불능’의 신체와 인구의 (필연적) 생산이라는, 생명권력 통치의 핵심에 개입하고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그 통치의 효과로 침묵된 이들의 ‘언어’를 발견하는 작업이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주체(화)/타자(화), 침묵/언어 등을 둘러싼 윤리, 실천, 이론적 개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묻는 자기 고백이다.

주제어: 주체(화), 타자(화), 언어, 불능, 교차성

* 이 글은 한국 코다들의 모임인 <코다 코리아>가 부모님과 삶에 대한 글쓰기 작업을 해온 결과를 엮어 펴내는 단행본 『우리는 코다입니다』(교양인, 2019. 11. 출간예정)에서 일부를 가져와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글쓰기 작업 내내 큰 힘이 되어준 모임의 코다들, 그리고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단절의 역사 : 정동, 인식, 정치

나는 나의 장애인 부모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인생 대부분을 살아왔다. 부모님은 스스로 자신들의 과거 삶을 말하지 않았다. 특히 나의 아버지는 수어와 음성한국어 모두 할 수 없는 농인이다. 하지만 가족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대신해 내게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유년기에 어떤 아이였는지, 청소년기는 또 어떻게 보냈는지, 농학교를 다니다 어떻게 중간에 그만두게 됐는지,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 주변에는 어찌하여 아버지와 같은 농인이 하나도 없는지 등 많은 것들이 마치 비밀인 것처럼 가족 안에서 철저히 함구되었다. 지체장애인인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일상의 필요에 의한 소통을 제외하고 자신의 삶이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말하기 기회를 가질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인 부모의 역사와 삶은 자식인 내게 철저히 단절되었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 되어왔다. 그리고 장애인의 가족/자식으로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내 고통을 누가 알까만을 생각했지, 당사자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스런 상황인지를 헤아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나는 집 밖에서 장애인들과 의미 있는 만남의 기회를 갖고자 찾아다녔다(나는 수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신체장애인들이었다). 성인 장애인들과 만남에서 얻은 일종의 해방감은 망설임 없이 나를 장애인 인권운동으로 입문하게 이끌었다. 마침 내가 성인이 된 2000년대 초반을 전후로는 장애인 인권 운동이 '이동권' 운동을 필두로 급속도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장애인 인권운동에 투신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와 함께 장애인 관련한 사회 변화도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활동보조인 제도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으며, 장애인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주체이자 시민으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10 여 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빠르게 변화로 나타난 것이었다. 내가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여성들의 젠더폭력·섹슈얼리티 문제를 주된 의제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청각장애인들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영화로 재현한 <도가니>가 나와 이례적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장애인과 젠더폭력에 관련한 국가 시책 등 제도적·법적 변화가 단시간 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사실 많이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법과 제도적 변화가 진정 변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에서 흔히 소환되고는 하는 극단적 폭력과 소외, 빈곤 등으로 점철된 장애인의 현실은 사회적 가시성을 획득하고 빠른 법적 변화를 추동해내는 자원이 되어왔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 같은 극단적 폭력과 소외, 빈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일상적으로도 우리 '결'에 함께 하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나 '타자'이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매일 매순간 스스로 '존재 이유'를 찾아 설명해야 한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는 내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절실한 문제였다. 사회의 빠른 속도의 장애 인지와 요란한 법·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우리 가족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전과 다름없이 부모님은 이 사회 인간의 등급에서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며 변함없이 위험천만한 일상에서 두려움과 분노, 우울은 늘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부모님 스스로 자신들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자신들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한마디 불평조차 없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나 혼자만 분노를 터트리고 우울함에 빠져야 하는 날들이 늘어만 갔던 것이다.

그러던 중 나는 몇 년 전 우연히 '코다'(Children Of Deaf Adults, CODA, 농인의 자녀를 일컫는 국제적 용어. 코다의 약 90퍼센트는 청인이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그들의 모임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님 주변이나 내가 활동하는 곳에는 아버지와 같은 농인이 없었기에, 나는 코다들을 통해 다른 농인/장애인 부모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 코다인 그들 대부분이 부모 양쪽 모두 농인이며, 그런 부모와 함께 자연스럽게 농문화의 일원으로 삶을 살고 있었다. 수어는 그들만의 문화를 표시하는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한 힘이었다. 이를테면 코다들은 농부로부터 한국어가 아닌 수어를 제1의 언어로 습득했다. 수어는 (나와는 달리) 부모와 그들 간의 소통의 도구였다. 하지만 그런 점이 그들을 어려서부터 농인/장애인-청인/비장애인 세계를 잇는 통역자로 위치 지웠고, 그런 위치는 어린 나이서부터 그들이 ‘어른’이 되도록 했다. 이를테면 그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세상의 멸시를 부모에게는 다른 말로 통역해주거나 음성언어 중심의 세계에서 부모의 ‘보호자’ 역할을 강제당해야 했다. 때문에 그들은 부모와 외부세계 양쪽 모두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코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 이들의 자조적 모임을 만들도록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나는 그들이 무척 부러웠다. 그들과 부모 사이에는 수어가 있었고, 그런 그들은 부모의 과거 삶 그리고 현재 그들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 등을 비교적 잘 소통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들과는 다르게 농인 아버지(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어머니)의 삶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수어조차 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했고, 나에게 ‘코다’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것 같은 죄의식을 느끼게 했다.

이 모든 개인적 경험과 정동은 나를 과거, 역사로 이끌고 연구를 추동하였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자’, 사회 ‘최하층’, 끊임없이 ‘존재 이유’를 심문당하는 장애인의 이 같은 실존은 어디서 기원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코다들의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나는 절박하게 무엇이든 붙잡고 싶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농인들은 농문화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일 정체성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내가 만난 코다들의 부모들 역시 대

부분 농민화의 일원이었다. 농민화는 농인들이 가지는 강력한 자긍심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비록 다양한 논쟁이 있는 지점이지만 하지만 그들 중에는 농인의 몸의 차이가 ‘장애’가 아니라 단지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소수성일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언어(수어)가 없는 농인은 무엇일까? 나는 평생 동안 수어를 할 줄 모르는 농인 아버지를 농민화의 일부로 상상해본 적이 없고, 농민화의 존재 역시 알지 못하고 살았다. 책을 통해 농민화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버지와 우리가 죽은 농민화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했을 뿐, 어찌하여 그러한 단절이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한국의 코다들과의 만남 이후로 그들 부모들과 내 부모의 삶을 자연스럽게 비교해 봄으로써 비로소 내가 포착한 한 가지 실마리는, ‘세대’였다. 내 부모는 내가 만난 다른 코다 부모들 세대보다 가장 뒷세대인 1950년대 생이며, 특히 아버지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출생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어난 1950년대 사회상과 당시 부모님의 삶을 추적해 나갔다.

당시 한국사회를 나의 세대나 더 이후의 세대들이 그려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나 갖가지 정치적 혼란 상황에 처한 곳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부딪치기 마련인 것은 가난과 배고픔, 질병, 죽음 같은 일차적 생존의 문제다. 부모님 모두는 농촌 지역에서 태어났고, 다른 시대나 공간에서 태어나고 살았다더라면 아마 피했을 수도 있었을 질병이 당시의 내 부모에게도 닥쳐왔다.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기본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당시 많은 가난한 삶들이 그랬듯이, 어린 생명에게 찾아온 병마 앞에서 두 가정의 식구들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한다.¹⁾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병마는 부모님을 죽음에서 놓아주었고, 아버지에게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몸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없는 몸을 살게 하고 떠났다. 그리고 부모님의 삶은 질병을

1) 한국에서 홍역이나 소아마비 등의 표준 예방 접종체계가 의무화 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접종 기회가 제공된 것은 불과 1970-80년대애나 와서다.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의 삶과 결코 같은 것일 수 없게 되었다. 아니, 그보다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농인들이 농문화에 소속되지만, 내 아버지와 같이 농인됨이란 실존이 곧바로 그 같은 소속으로 이어질 수 없었던 것의 원인은 당시 한국의 복잡한 사회 상황에서 찾아야 했다. 농인들은 어린 시절 부터 농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수어를 사용하고, 언어 뿐 아니라 그들만의 전통, 유머, 사회적 지원, 그리고 강력한 전통으로써 농인 간의 결혼 등을 수행하며 ‘농문화’를 형성한다.²⁾ 그러니까 ‘학교’, ‘가정’과 같이, 모든 생명이 태어나서 사회적 존재, ‘인간’이 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들은 농문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있다. 유럽에서는 대략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농문화의 역사가 있다고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다.³⁾ 한반도의 경우 적어도 근대적 농교육이 처음 도입됐다고 알려진 일제 식민지 시기, 농학교는 평양에 한 곳, 조선총독부 산하 제생원에 한 곳, 이렇게 전국에 두 군데가 존재했다.⁴⁾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할 점령되면서, 남한에 남은 제생원은 일본의 손을 떠나 이번에는 남한을 점령하고 있던 미군정청 관할로 넘어갔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학교에 입학했던 60년대 초 당시까지 남한의 국공립 농학교는 서울과 부산에 한 개씩, 전국에 총 2개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회 목사 등 ‘독지가’들이 농교육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했다.⁵⁾ 이러니 농인들의 교육 접근성은 매우 떨어졌고, 농인 인구의 많은 수가 부랑인이나 극빈자로 살았다.⁶⁾

2) Burch, S. & Joyner, H., *Unspeakeable: The story of Junius Wilson*,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3) Davis, L., *Erfforcing Normalcy: Disability, Deafness, and the Body*, London · NY: Verso, 1995.

4) 최원규, 『외국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5) 『不具(불구)에 걸친 無權地帶(무권지대)』, 『경향신문』, 1962.8.13.

6) 『自活(자활)의 길 찾은 六百聾啞者(육백농이자)』, 『동아일보』, 1959.4.20. 한편, 1961년 보건사회부가 간행한 남한 최초의 ‘장애인’ 인구 조사 보고서인 『한국장애아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초등교육만 마쳤거나 문맹인 장애아동의 비율이 전체의 80퍼센트에 육박

식민지, 전쟁, 분단 등을 거쳐 온 한국의 역사에서 농문화가 설 자리는커녕 장애인/농인이 최소한의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문화의 또 다른 중요 토대인 수어는 남한의 농교육 일선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교육에서 구화교육과 수화교육은 많은 갈등을 겪어온 유구한 역사가 있으며, 농교육 철학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가 그 원인이었다. 음성언어로 농인들이 청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구어와 (청각능력을 대체 할) 독순술(lip reading)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쪽과, 농인에게 가장 잘 맞는 수어를 고수해야 한다는 쪽이 갈린 것이다. 전자의 경우 농인이 청인 사회에서 청인들과 소통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기에 필요한 기초적 사고능력의 향상과 자연스런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의 습득을 방해하며, 청각장애 아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언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립해 왔다.⁷⁾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에서 하나의 뚜렷한 정답이 있을 순 없지만, 두 시각의 대립은 최소한 농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이로운 게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과 토론의 장을 열어준다. 그런데 한반도의 불운한 역사에서 두 가지 교육 철학의 차이는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음성언어 중심의 구화교육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왔다.⁸⁾ 이러한 ‘정상화’ 위주의 언어 교육은 농인/장애인 인구를 보다 더 ‘생산적’ 인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교육은 전통적으로 구직에 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회부·한국아동복지위원회, 『한국장애아동조사보고서』, 1961 참조.

7) Burch, S. & Joyner, H., op. cit.; Kermit, P., “Cochlear implants, linguistic rights and ‘open future’ arguments”, *Arguing about disability: Philosophical perspective*, NY: Routledge.

8) 김병하, 박경란, 『한국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 고찰: 1970년대 말까지』,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1(1), 2010, 177~202면. 또한 다음의 기사 참조. 『特殊學校(특수학교) 學父兄聯合會(학부형연합회)등서 呼訴(호소)』, 『동아일보』, 1966.6.8.

리한 직업교육, 그 중에서도 숙련도 낮은 기계공이나 옷감 재단, 목공 등 육체노동 위주의 직업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을 지니는데, 이들은 복잡한 의사소통이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아 농인이 구직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 근거가 되었다.⁹⁾

아버지는 청력을 잃고 학령기보다 좀 늦은 나이인 60년대 초반에 대전 지역의 한 사립 기숙형 농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당시 사립 농학교는 말로만 ‘학교’였지,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남들보다 늦게 학교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어린 아이였던 아버지는 학교에서 학업이 아니라 단순 육체노동을 매일 강제 당했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기숙학교의 생활환경은 더 열악했던 것 같다. 아버지가 지금도 보리밥을 싫어하는 이유는 농학교 기숙사에서 매일 제공된 보리밥과 콩나물국을 견뎌야 했던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이 속에서 아버지는 초등 과정 정도만을 간신히 마치고 농학교를 도망치듯 나왔다. 아버지가 농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수어를 습득하고 구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농학교를 도망친 이후 아버지는 농인 및 농문화와 영원히 단절되어, 소리가 없는 세계에 혼자 남아 자신의 언어를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¹⁰⁾

한편, 어머니가 태어난 외갓집은 북한과 맞닿은 남한의 북쪽 끝 파주 지역이었고, 따라서 이 지역에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대규모 미군부대가 주둔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서 미군병사들과 군부대 탱크, 지프차 등은 무한대로 이동의 자유를 누려왔지만, 반면에 주민들은 70년대 까지 군부대의 검문을 통과해 이동해야 했을 만큼 신체와 이동의 자유, 안전을 심각하게 제약 당해왔다.¹¹⁾ 물론 소아마비 신체장애인이 된 어머니의 경우 이 속에

9) Burch, S. & Joyner, H., op. cit.

10) 이상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없었다. 대신 할머니와 어머니, 고모 등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당시 농교육 현실에 대한 신문 및 논문 자료들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11) 파주읍 용주골에 위치한 <현장사진연구소>에 방문해 사진가 이용남 님으로부터 들은 비공개 강연. 2018.10.9. 방문.

서 더 큰 이동의 제약을 경험해야 했다. 5-60년대 당시는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 역시 매우 드물었고,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는 작은 산을 하나 넘어야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어머니는 학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신체장애에 더해 ‘문맹’으로서의 어려움까지 가지고 살게 되었다.

당시 가난한 농촌에서 딸로 태어나는 건 어차피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다가 일찌감치 도시에 나가 돈을 벌거나 시집가는 게 운명인 시절이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어머니는 외할머니 곁에서 하루 종일 크고 작은 가사노동과 농사일을 거들었고, 그렇게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몸으로 비장애 남성과의 결혼은 감히 꿈꿀 수 없었다. 오직 자신과 똑같이 장애가 있는 남성과의 결혼만이 가능한 선택지라 믿었고, 그렇게 청각장애인인 아버지와 중매로 맺어져 결혼을 했다. 두 사람은 아무런 연고도 없고 장애도 달랐지만, 오로지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결혼해 살아야 한다’는 자타의적 믿음 같은 것이 맺어준 인연이었다. 두 사람은 장애인이지만, 아무것도 공유하는 바가 없었다. 만약 아버지가 농학교를 끝까지 마치고 농인 문화에 소속돼 있었다면 아마 같은 농인 여성과 결혼을 했을 것이다. 어머니 역시 학교를 다녔거나 다른 신체장애인들을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면, 스스로 거의 알지 못하는 청각장애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배움에 대한 한 같은 것이 있지 않은지, 청각장애 아버지와 결혼이 아닌 좀 더 나은 수도 있었을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는지를 종종 질문하고는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항상 나의 예상을 빗겨나갔다. 어머니는 자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사회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공부하기 싫어해서, 학교 안가서 좋았어”라고 말했다. 또한 아버지는 젊었을 때 무척 잘생긴 외모에, 당시 친가집이 전화기랑 냉장고 까지 갖추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사는” 집이었기에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식이었다. 아버지와 달리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어머니는 평생 ‘언어’를 빼앗긴 채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언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장애인이자 여성으로 학교를 못 간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기 싫어했으니 안가는 ‘선택’을 한 것이고, 장애인 외 다른 결혼 상대는 애초 꿈꾸지도 못했던 게 아니라 자신은 가장 합리적인 결혼상대를 ‘선택’ 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단절되었던 역사를 더듬어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나는 내 부모님 개인의 삶이 결국 커다란 역사와 함께 형성되었음을 체감하고 있다. 또한 그 커다란 역사를 도도히 흐르는 ‘정상성’과 권력에 의해 내 부모의 과거 흔적과 역사는 언어 없음 속에 사라졌다. 그로인한 단절은 사회에서 뿐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따라서 이렇게 부모/장애인들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과정은 내게 근원적인 문제, 즉 스스로 언어가 없고 과거가 지워진 존재에게서 역사를 찾아내 글을 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게 만든다. 지워져 버리고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으며, 스스로는 물론 다른 누구도 언급하려 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내가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반복할수록 오히려 나는 그 과거를 더 쫓아가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정상성에 의해 통치되는 이 세계의 정동적이고 문화적인 무의식을 찾아내고 싶은 욕망이지 않을까. 서구사회(특히)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에서 ‘정동적 전회’(affective turn)라 불리며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비평의 사조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오랜 페미니즘의 인식론을 ‘정동’, ‘감정’의 영역에 대한 성찰로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들의 연구는 정동을 학문과 이론에의 통찰을 가져다주는 출발점으로 인식하며, 개인 및 집단의 정동적인 경험을 집합적인 사회적 재조직과 연결하는데 관심을 가진다.¹²⁾ 이는 그만큼 그간 학문과 정치의 장

12) 클라프, 페트리샤. 『정동적 전회: 정치경제, 바이오미디어, 신체들』. 『정동이론: 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 외 옮김, 서울: 갈무리, 2015; Ahmed, S.,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Y: Routledge, 2004; Cvetkovich, A., “Depression is ordinary: Public feelings and Saidiya Hartman’s *Lose Your Mother*”,

에서 개인/감정은 집단/의식의 그것만큼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거시적 틀의 법 제도, 이데올로기 보다 우리가 지금 매일 살고 있는 ‘일상’,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또는 법이나 이데올로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말이다. 나의 경우에도 장애인 가족과 일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인한 분노나 우울감 같은 정동은 그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치부’ 같은 것이라고 오랜 시간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 나는 ‘정치화’될 수 있었고, 나에게 그와 같은 수치심과 두려움,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 ‘과거’를 정동적으로 ‘현재’로 가져와 해부하고자 하는 욕망을 추동했다. 비록 사회는 내가 알고자 하는 그들의 언어를 빼앗았고,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지만, 바로 그 ‘언어 없음’과 ‘망각’은 언어적인 것을 넘어 정동적으로 나를 어딘가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단절의 역사를 ‘인식’한 내 몸은 변화해, 더는 이전의 내가 아니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그렇게 언어 없이 지워진 이들의 “유물”이고 “흔적”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역사는 세속적 세계가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다가가는가 하는 문제다.”¹³⁾

2. “잘못된 삶¹⁴⁾”: 장애여성 그리고 ‘예외’가 되는 몸들

장애인의 존재 이유에 대한 사회적 의심은 애초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손해’, ‘잘못된 삶’이라는 강력한 전제에서부터 기인한다. 1990년대 중반에 이와 관련해 웃지 못 할 사연의 법적 소송이 벌어졌었다. 한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유인즉

Feminist Theory, 13(2), 2012; Puar, J., “The cost of getting better : Suicide, sensation, switchpoint”,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8, 2012.

13) Hartman, S, *Lose your mother: A journey along the Atlantic slave route*, New York : Farrar, Straus and Giroux, 2007, pp.17~18.

14) 장애인 변호사 김원영의 에세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사계절, 2018)에서 인용.

그 부부가 임신하고 태아의 양수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산부인과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출산한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발견되었던 것이다.¹⁵⁾ 이 사연 속 부부의 행동은 만약 태아에게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낙태는 당연하며, 장애아를 출산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만연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2000년대 중반 무렵 장애여성 인권운동 단체 <장애여성공감>에 발을 들여 놓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문제 역시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바로 장애여성의 성(sexuality)과 재생산(reproduction)이다. 페미니즘 운동에서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을 비롯한 몸과 섹슈얼리티, 보건의료, (여성)시민권 등을 둘러싸고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되어온 개념의 하나다. 그런데 갓 활동을 시작한 내게 너무나 명백히 문제로 다가왔던 것은 한국 형법이 여성의 낙태를 명백히 죄라고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생학적’인 이유(태아와 부모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등 몇 가지 예외적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낙태죄의 예외적 허용 조항은 ‘모자보건법’ 상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생학’은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장애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다. 모든 여성들에게 명목상이나마 낙태는 금지라고 하는데, 왜 어떤 이들에게는 반대로 이를 허용하고 사실상의 ‘출산 금지’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장애인 부모의 재생산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나의 태어남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우생학이라고 하면 사회는 흔히 인종적 소수자와 장애인, 동성애자 등을 말할려 한 나치즘의 ‘비상사태’를 떠올린다. 하지만 <장애여성공감>에서 만난 많은 장애여성들의 일상에서, 파시즘 전체주의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닌 지금 현재도 시설수용, 자궁적출, 강제불임, 강제 피임수술 같은 비인간화와 출산 금지 압력은 상례(常例)였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일상 자체가

15) 같은 책.

‘비상사태’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비가시화 되어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제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담론확산과 여성운동의 주류화를 성취했지만, 여성들에게 낙태를 금지하면서도 장애여성 등 ‘소수자’ 여성들의 임신출산을 금지하는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을 한국 여성운동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아직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이와 같은 법적 규정이나 획일적 사회 인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들의 일상에서 성과 재생산의 문제는 훨씬 복잡한 맥락을 지녔다. 내 어머니의 경우와 같이 어떤 장애여성들에게는 결혼해서 임신, 출산, 양육을 하는 과정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여성 역할·‘정상성’을 수행하는 데 핵심이 된다. 이 경우 장애여성에게는 무엇보다 ‘비장애’ 자녀 출산을 통한 ‘정상성’ 수행이 더욱 강력하게 의무로 부과되는데, 오늘날 뛰어난 산전검사 기술은 - 실상 장애여성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 그것을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보조해 주고 있다. 이 속에서 장애여성에게 ‘우생학적’ 낙태는 맥락에 따라 더 절박한 선택이 되기도 하는, 모순적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경우 장애여성들은 법 규정대로 ‘우생학적으로’ 수용시설이나 집에 격리되어 그들의 성과 재생산, 즉 삶 전체를 박탈당해야 한다. <장애여성공감>에서 지원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경우의 상당수는 후자의 경우였는데, 장애여성들이 수용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살다가 성적 행위(성폭력 또는 합의된 성관계를 막론하고)를 하거나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사회를 위협하고 그녀들의 가족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사건’이 되는 것을 나는 수도 없이 지켜보아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장애여성에게 성/재생산 ‘권리’란 법에서 우생학 조항 한 문장을 없애고 말고 할 단순한 문제만이 아니라, 혹은 임신이나 출산, 성폭력/성관계 등과 같은 일종의 ‘사건’에만 한정된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인간됨이나 삶에 있어서의 차등, 가치 있는 삶과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삶이 어떻게 한 사회 안에 분할되고 배치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고민하며 활동하는 동안 내가 싸워야 했던 것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었다. ‘장애’와 ‘여성’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몸과 성, 재생산을 둘러싼 풍부한 통찰은 ‘정체성’ 중심의 단일 운동들 - ‘장애운동’과 ‘여성운동’ - 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부차화·사소화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장애인 운동에서 장애인은 ‘남성’으로 대표돼, 남성장애인의 경험과 관점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장애여성의 독자적 운동이 만들어진 역사가 있다. 이 속에서 장애인의 성/재생산 권리 역시 ‘여성’의 문제로만 여겨져 시설 인권 침해나 이동권의 제약 등 가시적인 ‘사건’들에 비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반대로 여성운동의 경우 가부장적이고 젠더 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확보라는 강력한 프레임이 작동하는 속에서 장애여성이라는 ‘소수자’의 문제나 우생학은 ‘여성’의 의제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2010년 한국 여성 재생산권 운동에서 한 획을 긋는 분기점이 찾아왔다.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하면서, 낙태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비교적 손쉽게 임신중단 의료시술에 접근할 수 있었던 기존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던 것이다. 여성의 성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통제와 감시적 개입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은 당연히 여성들을 결집시켰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입장과 상이 달랐다. 여성운동 일각에서는 임신 중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모자보건법) 조항이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허용 사유를 넓히는 방식의 법 개정(당시만 해도 형법 상 낙태죄 조항 폐지는 어느 누구도 선뜻 말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목표였다)을 목표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장애여성공감>은 모자보건법 상의 ‘우생학적’ 허용 사유를 그대로 두는 법 개정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 여성의 시각과 입장을 함께 나누고 연대할 ‘여성’ 조직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무엇보다 ‘우생학’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여성 재생산권 운동의 의제가 결코 될 수는 없었다.

2010년을 전후로 한국의 여성 재생산권을 둘러싼 담론의 급작스런 변화는 운동적·담론적으로 ‘장애여성’의 관점을 보다 가시화하고 언어화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했다. 내 개인적 삶에서나 <장애여성공감> 모두에서 장애여성들의 몸, 성,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의 문제는 남들과 별다르지 않는 삶과 일상의 복잡다단한 문제의 하나였다. 또한 동시에 장애여성의 성/재생산을 둘러싼 '다른' 경험은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인권, 페미니즘 및 장애운동의 전제에 근본적으로 균열을 내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학문과 운동의 언어로 매개되고 문화의 장에서 가시화 되지 않음으로써 언제나 '타자'의 '예외'인 문제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2011년에 여성학과 대학원 학위 논문을 통해 장애여성의 입장에서 몸/성/재생산 정치를 드러내고자 했다. 논문에서 나는 몸/성/재생산을 둘러싼 장애여성들의 실제 경험을 가시화하려 했고, 이를 통해 낙태를 포함한 여성 재생산권이 마치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하는 것인양 대립시키는 허구적 구도가 장애여성의 경험에서 전적으로 재성찰되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려 했다.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이 부정되고 특정한 생명의 낙태와 출생금지 조장하는 법적이고 문화적인 강제는, '생명권'을 도구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근본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특정한 여성들의, 그것도 출산이나 임신 중지 장면에만 한정된 자율성의 문제로만 논의된다면 여성들 안의 차이와 거기에 파생되는 복잡한 정치는 삭제된다는 점 역시 이야기 하고자 했다.

<장애여성공감>도 이제껏 꾸준히 제기해온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의제를 보다 더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저출산'과 재생산권리가 이례적으로 불러일으킨 전 사회적 논쟁의 한 가운데에서, 장애여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가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재생산권을 박탈당해 왔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장애여성공감>의 문제제기는 점차로 많은 공감과 연대의 손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여성과 마찬가지로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과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무관심에 놓여 왔음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성과 재생산에 있어서 위계를 세우고 구분 짓기

를 하며 특정 인구의 재생산을 체계적으로 금지하는데 앞장서왔던 국가가 지금의 ‘저출산’ ‘위기’를 부르짖고 있는 국가와 과연 같은 국가일 수 있는 지,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위기’인지, 이런 질문들은 점점 더 많은 소수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장애여성공감>은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단체 및 활동가·연구자 등과 함께 2015-6년에 걸쳐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 그리고 이어서 <성과 재생산 포럼>이라는 연대체를 결성했다. <성과 재생산 포럼>은 기존의 여성 재생산권 운동이 삭제했거나 보지 못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토대로 새로운 성/재생산 권리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나아가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경험이 다양한 소수자들의 그것과 만나 교차하고 결집된 시각은, 결국 기존 주류 담론에 ‘소수자’인 우리를 맞추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 한국의 성/재생산 권리 논의의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는데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¹⁶⁾

그러나 무엇보다 ‘소수자’의 성/재생산 권리 패러다임 전환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운동 의제의 확장을 예고했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형법 상 낙태죄 조항의 폐지 그리고 낙태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명시한 법조항(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을 목표로 했지만, 동시에 법적인 변화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활동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성과 재생산 권리가 ‘낙태죄’ 그리고 ‘우생학’ 조항 하나를 법에서 폐지하는 것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인 것은,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우생학’ 그리고 ‘정상성’이 결국 어떤 인구가 한 국가와 사회에서 ‘생산적’ ‘정상적’ 인구이며, 또 누가 애초에 배제되어야 할 인구인가를 분할하는, 현대 국가들의 통치에서 핵심적 기제들을 가로지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¹⁷⁾ 통치성에 의해 삶과 (성/재생산의 주체로서) 인간

16)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성과재생산포럼>이 기획, 출간한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2018, 후마니타스) 참조.

됨을 부정당해야 하는 인구는 ‘장애여성’에 국한되지도 않을뿐더러, 임신과 출산의 장면에만 국한될 수는 더더욱 없는, 박탈당한 허다한 사람들의 실존 그 자체의 문제다. 때문에 법의 폐지나 개정만큼 중요한 것은, 그간 오랜 시간 낙태죄와 낙태의 예외적 허용이라는 법과 사회문화적 효과로서 삭제되거나 침묵되어온,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다양한 소수자들의 삶의 맥락들과 목소리들을 사회적으로 전면 드러내는 것이다. 오랫동안 출산을 저하가 경제발전이라 여겨 여성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낙태하게 유도해온 국가가,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출산 장려와 여성의 낙태 금지로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만 보아도, 성과 재생산권리가 국가 ‘인구’ 기획에 종속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다. 이런 흐름은 신자유주의 경제 재편과 재생산 위기 속에서 ‘성평등’을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나 부차적 문제로 재배치하고, 여성정책의 초점을 (젠더평등이 아니라) 인구 재생산으로 이행해온 과정과도 만나는 것이다.¹⁷⁾ 인구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언제나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몸을 가장 정치적인 ‘전장’(battleground)으로 만든다면, 인구 정치를 둘러싼 권력의 작동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바로 그러한 전장을 해체하고 비판하는 데 핵심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이, 성별·성적지향, 인종, 나이, 계급, 장애 등에 따라 어떻게 성과 재생산에 있어 권리를 침해받고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묻고, 억압과 불평등이 중첩되고 경합하는 교차점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의제로 고민할 것을 요청한다.

17) 루빈, 게일, 『일탈: 게일 루빈 선집』, 신혜수 외 옮김, 서울: 현실문화, 2015; 푸코, 미셸, 『성의 역사: 삶의 의지』, 이규현 옮김, 서울: 나남, 2004; 푸코, 미셸,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 심세광·조혜리·조성은 옮김, 서울: 난장, 2011; Bashford, A., & Levine, P.,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eugenics*, NY: Oxford UP, 2010; Davis, L., op. cit.

18) 김보명, 『촛불광장 이후의 젠더민주주의를 향한 실천』, 『안과밖』, 46, 창비, 2019.

3. 교차성 그리고 ‘불능’의 정치

성과 재생산권리의 패러다임 전환 운동을 통해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과 삶에서 도출된 장애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통해, 나는 최근 ‘교차성’ 그리고 ‘불능의 정치’라는 키워드를 주로 고민하고, 글을 쓰고 있다.

흔히 ‘소수자’로 범주화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인 - 특히 장애여성 - 은 가장 주변화 되고 취약한 집단이라고 호명되고는 한다. 그리고 그런 장애인들 스스로 ‘몸’을 기반으로 매우 강력한 단일 정체성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타자화·주변화 된 집단의 대표적 형상(장애여성, 흑인 레즈비언, 이주 비혼모 등과 같이)은 그들에게 그토록 주변화 된 위치를 할당한 지배적 구조‘들’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기보다, 많은 경우 누가 더 취약한 집단인지를 내세우면서 소수 집단의 특징을 또 다시 정형화하는 시도로 그치는 문제가 있다.¹⁹⁾ 그리고 억압의 범주‘들’은 결코 단일하게 완결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범주들과의 교차와 상호 작용 속에 침투해, 기존 범주는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는 연속적 과정에 놓여있다. 이것이 바로 ‘교차성’(intersectionality) 정치학이 ‘정치’인 이유이다. 서구사회에서 흑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처음 제기된 교차성 개념은, 백인 여성들이 구성한 ‘젠더’라는 개념이 비백인·비서구 여성들의 경험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질 수밖에 없고, 이때 ‘젠더’는 이미 인종화 된 부분적 개념이 된다는 것을 통찰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차성의 관점에서 ‘장애’라는 범주·개념은 어떻게 사고해야 할까?

미국 흑인이자 농인인 주니어스 윌슨(Junius Wilson)이라는 사람의 삶은 교차성의 정치학이 장애 개념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삶은 언어와 인지능력, 그리고 피부색으로서 인종과 관련한 상호 교차적 억압이 한 사람을 비인간화 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기능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19) Kafer, A. and Kim, E., “Disability and the edges of intersectionality”, *The Cambridge companion to literature and disability*,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P, 2018.

사례이기 때문이다. 1900년대 초 미국 사회는 흑백 인종 갈등이 극에 달했고, 쿠클럭스클랜(Ku Klux Klan) 같은 극단적 백인우월주의자 집단이 흑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허다한 시기였다. 따라서 흑인들은 철저하게 인종 분리된 학교나 지역사회는 좁은 공간에 모여 살면서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가질 수 없었고, 거기서 흑인 농민들은 중층의 억압을 경험해야 했다. 흑인 농민들은 인종차별로 인해 (백인 농민들의 전유물인) 미국수어(American Sign Language, ASL)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동의 제약으로 지역마다 제각기 다르게 변형된 수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동적으로 흑인 농민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벗어나 다른 지역이나 인종의 사람들과 수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됐다.²⁰⁾ 주니어스 윌슨의 청인 부모는 노예로서 수어와 글자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이 속에서 그는 극심한 흑백 인종 분리와 인종차별, 그리고 그로인해 그의 가족과 흑인 커뮤니티가 처한 총체적 곤경을 제대로 듣고 인식하지 못한 채 성장했다. 그러다 17세가 됐을 무렵 그는 강간 범의 누명을 쓰고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범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지만, 그가 사용하는 지역 수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법 및 의료 관료들은 그에게 ‘정신박약’, ‘위험한 흑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감옥 대신 ‘골즈보로 미친유색인정신병원’(State Hospital for the Colored Insane, Goldsboro)에 수용했다. 그곳에서 그는 거의 평생 감금된 채 삶을 살았다.²¹⁾ 노예의 자손이자 문화적 농인이었던 그의 존재는 청인/비장애인 중심주의 뿐 아니라 인종차별, 젠더, 계급 등이 얽혀져 같은 농인이라도 전혀 다른 실존을 살게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차성의 정치학은 기존의 단일 운동을 상상할 때 동원되는 조직 원리로서 ‘정체성’에 급진적으로 도전을 제기한다. 단일 정체성 정치학은 백인, 중산층, 시민으로 이루어진 규범적 주체의 경험을 중심적 예시로 내세워 다른 차원의

20) 이렇게 농인이 자신의 자연스런 (농과 청 모두의) 언어 및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 상태는 ‘문화적 농’(culturally deaf)이라고도 불린다.

21) Burch, S. & Joyner, H., op. cit.

사회적 경험과의 교차를 삭제할 수 있다. 실제 구체적 현실에서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장애가 작동하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양식은 정체성으로서 혹은 분석적 구분으로서 범주의 경계를 허문다. 그리고 이 때문에 교차성의 정치학은 근대 자유주의 통치의 핵심원리인 생명권력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용하다. 서구/백인/남성/유산계급/이성애자/인간-종種을 특권화하는 근대적 ‘주체화’²²⁾ 그리고 생명권력의 ‘통치성’이라는 짝패는 그것 자체로 비서구/비백인/비남성/무산계급/비이성애자/비인간-종으로써 비인간화 · 비정상화 · 비규범화 되는 교차적 주체들을 예고한다. 푸코는 근대 자유주의 세계를 통솔하는 권력의 형태인 ‘통치성’이 인민을 “살게하는 권력”²³⁾, 즉 생명권력의 형태를 띠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유색인, 여성, 퀴어 등 수많은 타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심지어 폭력이나 삶의 취약성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처럼 생명권력은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 개인 및 집단과 반대로 취약성과 ‘불능’, ‘죽음’을 할당받는 집단을 나누어 분할 통치한다. 이러한 분할에 있어서 특정하게 독립적인 범주나 정체성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 지식과 합리성, 규범 같은 담론과 기술, 즉 19-20세기 내내 맹위를 떨친 우생학, 성과학, 통계학, 심리학, 보건학 등²⁴⁾은 생명 · 삶을 누릴 만한 인구와 그것을 금지해야 할 인구를 가르는 갖가지 ‘과학적’ 측정과 분류를 시도했다. 출생률, 유병률, 수명, 생산성, 가임률 등의 통계적 측량에 기대어 생명의

22) 푸코의 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분석에서, 통치는 개인의 ‘주체화’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의 저서 『성의 역사 1: 삶의 의지』는 생명권력이 추동하는 삶 · 생명에 대한 계산된 합리화, 그리고 그에 의해 굴절된 주체화의 장치들 안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특정하게 (성적)주체로 인식하게 되는 형태의 계보를 탐구한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Huffer, L., “Foucault’s eros: For an ethics of living in biopower”, *A companion to Foucault*,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13 참조.

23) 푸코, 미셸, 『사회를 보호해야한다: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76』, 김상운 옮김, 서울: 난장, 2010, p.289.

24) 루빈, 게일, op. cit.; 푸코, 미셸(2004), op. cit.; Bashford, A., & Levine, P., op. cit.; Davis, L., op. cit.

규범을 만들고, 정상적인 것은 이 규범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반대로 비정상적인 것은 무능력이 된다.²⁵⁾ 이렇게 ‘열등한’ ‘불능의’ ‘비정상’ 인구는 특정한 사회 규범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정치적인 범주지만, 그들의 비정상성은 생물학적이고 종種적인 차이로서 자연화 된다. 요컨대, 생명정치적 ‘불능’과 ‘취약성’, ‘죽음’을 할당받는 인구는 당대의 규범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든 ‘비정상’인구지, 특정 정체성이나 범주‘만’의 억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종, 젠더, 장애, 계급, 섹슈얼리티 등은 타자를 열등 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동시에 이용되고, 성적 타자화는 언제나 질병이나 장애의 언어를 빌리는 식으로 작동되는 등, 억압은 교차적·중층적으로 작동한다.²⁶⁾

일찍이 서구 사회에서 페미니즘 운동, 흑인 민권운동, 성소수자 해방운동 등의 정체성 정치학과 상호 참조 속에서 발달한 장애인운동 역시 신체적 ‘차이’에 대한 긍정과 권리보장, ‘장애인’이라는 정치적이고 집합적 정체성에 대한 긍정을 표방하는 정체성 정치학을 펼쳤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 이론은 신체의 생물학적 상태(몸의 손상)를 사회적 규범·정상성에 의해 ‘비정상’ 혹은 ‘질병’으로 규정하고 배제함으로써 장애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선구적 장애인론이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 이론에 기반 한 서구 사회의 장애인 인권운동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렇게 서구 백인 사회를 토대로 만들어진 ‘장애’ 개념 범주는 식민지, 전쟁, 빈곤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부재, 성차별, 인종주의, 지구화된 자본주의의 중층적 폭력으로 무수하게 불능이 ‘되는’ 신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유색인 퀴어페미니스트이자 장애학자인 푸아

25) 푸코, 미셸(2010), op. cit.

26) Kafer, A. and Kim, E., op. cit., 황지성, 『건강한 국가와 우생학적 신체들』,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2018; 황지성, 『불능의 정치를 이론화하기: 페미니즘, 탈식민이론, 장애인운동의 교차를 모색하며』, 『한국장애학』, 4, 2019.

(Puar)는 서구 사회 장애개념에서 파생한 장애/비장애의 이분법적 정체성이 비서구·비백인 인구에게 ‘불능(debility)’이라는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여분’의 위치를 할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역능=비장애인’, ‘불능=장애인’이라는 기계적 도식 속에서 불능은 ‘장애인’으로 불리는 정체성 집단에게 이미 언제나 부착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장애라는 몸의 조건이 아니었다면 ‘정상적’ 삶을 살았을 이들, 즉 백인/남성/이성애자/중산층 장애인의 취약성이라는 것이다. 이미 젠더, 계급, 인종, 민족 등 차이를 지닌 수많은 타자의 몸은 비록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장애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취약성·불능(‘여분’)을 할당받는다. 젠더 불평등과 젠더 폭력은 여성들을 불능으로 만든다. 인종주의는 비백인 유색인들을, 이원 젠더 규범성과 이성애 중심주의는 성소수자를 불능으로 만든다. 하지만 ‘장애인’ 정체성으로 호명되지 않는 이들에게 부착된 취약성·불능은 장애인에게 부착된 그것과 달리 쉽게 비가시화되고, 심지어 ‘안전’, ‘치안’ 등을 내세운 생명권력 통치에 의해 더 큰 폭력이 수행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기까지 한다.²⁷⁾

결국, 장애운동이 가장 예민하게 인식해 왔던 것처럼 몸의 취약성과 불능은 자연적인 상태가 아닌,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몸의 취약성과 불능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특권적인 개인과 집단에게는 ‘안전할 권리가 당연시되지만, 대부분의 박탈당한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취약함’, ‘불능’이 일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몸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규범적 ‘비장애인’도 될 수 없는 인구, 즉 ‘느린 죽음’²⁸⁾, ‘살아있는 죽음’²⁹⁾ 속에서 ‘취약성’ 및 ‘불능’을 강요당하는 존재를 ‘장애’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없게 된다. 단적으로, 19세기

27) Puar, J., *The right to maim: Debility, capacity, disability*, Durham · London : Duke UP, 2017.

28) Berlant, L., “Slow death : Sovereignty, obesity, lateral agency”, *Critical Inquiry*, 33, 2007.

29) Mbembe, A., “Necropolitics”, *Public Culture*, Trans. Libby Meintjes, 15, 2003.

맹위를 떨친 우생학과 인종주의는 인종적 타자들에 대한 식민지 점령과 노예화, 수탈을 통해 무수한 인구에게 장애·불능을 생산했고, 그러한 폭력의 지속과 효과로써 “전 세계 장애인 인구의 4/5가 남반구에 거주”³⁰⁾하고 있다. 또 오늘날 삼성반도체 공장과 같은 위험천만한 산업 생산 현장이나,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등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영구적 전쟁은 잠정적으로 ‘불구자’, ‘장애인’이 되는 ‘비장애인’의 존재 문제를 ‘장애정치학’과 관계 속에서 고민하게 한다.

따라서 ‘불능’의 정치는 단지 법률 상 ‘장애인’으로 귀속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문제제기가 아니며, 식민지, 군사점령과 전쟁, 근대화 과정의 폭력 속에서 우리 사회 많은 집단에게 편재할 수밖에 없는 ‘불능’을 드러내려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젠더·인종·섹슈얼리티·장애·연령 등의 억압이 ‘비정상’ 인구를 만드는데 항상 동시에 교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불능’의 인구가 조선/남한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이름들로 호명되었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추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의 정체성·범주에 대한 상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역사 속에 발견되는 ‘불구자’, ‘혼혈아’, ‘토막민’, ‘변태’, ‘걸인’, ‘불량소년소녀’, ‘부랑인/부랑아’, ‘고아’, ‘매춘부’, ‘미혼모’ 등의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정체성 범주를 부여받지 않았으며, 기껏해야 ‘취약 인구’ 정도로 분류되거나 대부분 범죄자나 열등한 인구들로 호출된다. 신문지면이나 기록물들 속에서 그들 존재의 파편들은 거의 언제나 엄청난 폭력과 배제, 고통 속에서 스러지고 죽어갔다. 거기에 그들의 ‘진짜’ 언어, 목소리는 부재한다. 나는 아카이브 안에서 그들을 만날 때 마다 그들의 언어,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상상한다. 자신의 언어, 목소리를 빼앗기고 침묵당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지를 상상해보면서, 역시 언어와 역사가 지워진 내 부모의 삶의 궤적을 역으로 비추어 보고는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30) Puar, J., op. cit., p. xi x.

순간 그들은 지금 내 ‘결’에 있는 사람들, 나와 결코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로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만 같다.

4. 마치며

근대적 주체화와 통치의 문제는 나 자신과 타자의 관계, 윤리를 일상에서 끊임없이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와 역사 속에서 내 부모는 심지어 자식인 나로부터도 ‘타자’가 되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비밀이 된 부모의 고통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곤경으로만 오랫동안 내게 인식되었다. 그와 같은 주체화/타자화의 심연 그리고 내 부모처럼 이 사회의 거대한 비밀로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 집단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나는 ‘역사’와 ‘불능’의 신체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 ‘장애인’ 또는 ‘여성’이란 정체성의 이름들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며, 그러한 정체성의 도식이나 범주로는 호명되지 않는 인구나, ‘불능’의 신체들을 이론화하고 그들의 지워진 역사를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일 정체성의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으며, 복잡한 권력의 중층적 작동 속에 침묵당한 타자들을 ‘(재)발견’해 나가고자 하는 작업에서 ‘역사’와 ‘불능’이라는 키워드는 내게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타자들을 마주하는 윤리, 이론, 방법론 등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으며 아마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의 교류 뿐 아니라, 연구자로서 역사적 현실보다 더 ‘귀어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유색인 퀴어페미니스트 사라 아메드가 통찰한 것처럼, 자아/주체가 부서지고 산산이 깨짐으로써 비로소 다른 파편들과 모일 수 있다(assemble)³¹⁾는 가능성만큼은 그 과정에서 내게 작은 용기와 위안이 되어준다. 부서지고 깨졌기에 여기저기 파편으로

31) 아메드, 사라,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이경미 옮김, 서울: 동녘, 2017.

흩어진 탈-주체로서 우리는 새롭게 연결될 수 있다. 나 역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 다른 것들과 연결될 것이다. 장애여성들을, 그리고 ‘코다’,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이주민, 부랑인, 입양인 등 수많은 파편들을 마주하고 그들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들과 나 모두는 역사 속에서 죽고 스러져간 이들의 ‘유적’이자 ‘흔적’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 일상에서 매 순간 깨지고 연결되려는 노력, 그들과 함께 침묵과 망각으로부터 저항하고자 하는 노력은, 내 부모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살다 간 ‘언어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고통과 더 무거운 침묵을 강요당했던, 말해지지 않은 역사를 지금 여기로 불러낼 하나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정체성이 아닌, 우리사회에서 ‘불능’이 되는 모든 몸, 인구들과의 이론적이고 실천적 결합(assemblage)만이 모든 인구의 삶과 생명을 위계화 하고 불능화함으로써 작동하는 생명권력 통치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하·박경란, 「한국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 고찰: 1970년대 말까지」,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1(1), 2010, 177~202면.
- 김보명, 「촛불광장 이후의 젠더민주주의를 향한 실천」, 『안과밖』 46, 창비, 2019, 179~200면.
- 김원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 2018.
- 루빈, 게일, 『일탈: 게일 루빈 선집』, 신혜수 외 옮김, 현실문화, 2015.
- 보건사회부·한국아동복지위원회, 『한국장애아동조사보고서』, 1961.
- 성과재생산포럼(기획),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2018.
- 아메드, 사라,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이경미 옮김, 동녘, 2017.
- 최원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미셸 푸코, 『성의 역사1: 삶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 2004.
- _____,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76』, 김상운 옮김, 난장, 2010.
- _____,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 심세광·조혜리·조성은 옮김, 난장, 2011.
- 패트리샤 클라프, 「정동적 전회: 정치경제, 바이오미디어, 신체들」, 『정동이론: 몸과 문화, 윤리, 정치의 미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 외 옮김, 갈무리, 2015.
- 황지성, 「건강한 국가와 우생학적 신체들」,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8.
- _____, 「불능의 정치를 이론화하기: 페미니즘, 탈식민 이론, 장애인운동의 교차를 모색하며」, 『한국장애학』 4호, 2019, 95~133면.

- Ahmed, S.,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Y: Routledge, 2004.
- Bashford, A. & Levine, P.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eugenics*, Oxford UP, 2010.
- Berlant, L., "Slow death: Sovereignty, obesity, lateral agency", *Critical Inquiry*, 33, 2007, pp.754~780.
- Burch, S. and Joyner, H., *Unspeakable: The story of Junius Wilson*,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 Cvetkovich, A., "Depression is ordinary: Public feelings and Saidiya Hartman's Lose Your Mother", *Feminist Theory*, 13(2), 2012, pp.131~146.
- Davis, L., *Enforcing normalcy: Disability, Deafness, and the Body*, London · NY: Verso, 1995.
- Hartman, S., *Lose your mother: A journey along the Atlantic slave rout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7.
- Huffer, L., "Foucault's eros: For an ethics of living in biopower", *A companion to Foucault*,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13.
- Kafer, A. and Kim, E., "Disability and the edges of intersectionality", eds., Clare Barker and Stuart Murray, *The Cambridge companion to literature and disability*,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P, 2018.
- Kermit, P., "Cochlear implants, linguistic rights and 'open future' arguments",

Arguing about disability: Philosophical perspective, NY · London: Routledge, 2009.

Mbembe, A., “Necropolitics”, Trans. Libby Meintjes, *Public Culture*, 15, 2003, pp.11~40.

Puar, J., “The cost of getting better: Suicide, sensation, switchpoint”,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8, 2012, pp.149~158.

_____, *The right to maim: Debility, capacity, disability*, Duke UP, 2017.

Abstract

From the silence of subjection to the language of shattering

Hwang, Ji-sung*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ntervening and resisting biopower through self narrative of personal experience. First, according to the 'affect' theory of feminism/queer critics, this article restores personal and affective experiences by connecting them with history and politics. Then, it describes the process in which personal life and the disabled women's movement form contact points and tensions between the disability movement and the women's movement,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t explores the theory/practice of politics of intersectionality and 'debility' as an alternative. One way of intervening and resisting the core of biopower and its governmentality that (inevitably) produce the 'debilitating' body and population should be the task of discovering the 'language' of those who are

silenced by the effect of that power. This article is a self-confession asking what ethics, practice, and theoretical interventions surrounding subject(ion)/other(ing), silence/language should be.

Key Words : subject, other, language, debility, intersectional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필자소개>

이름: 황지성

소속: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여성학과

전자우편: livetdans@gmail.com

논문투고일: 2019년 7월 24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6일